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4호 현대불교  
2007년 6월 27일(음력 5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 21

#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 비디오 법문 듣는 것에 대해서

**문** 요즘은 스님께서 직접 법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대신 비디오를 통하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신도님들이 새벽부터 분원에 와서 법문테이프를 직접 청하여 듣는 것과 지방 같은 경우 그냥 선원이나 가정에서 비디오 법문이나 카세트트를 통하여 듣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답하기 이전에 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 테니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하는 사람들이 권투를 서로 하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상황에 따라서 때리지, 정해 놓고 때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정해 놓고 맞는 데가 없습니다. 정해 놓고 때리고 정해 놓고 맞는 데가 없으니 그 가운데 뭐라고, 누가 맞았고 누가 때렸고, 어딜 때렸고 어딜 맞았고 이거를 말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비디오로 보든 그냥 이렇게 실제로 듣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들의 환상이 진짜, 진짜입니까? 그것은 환상 놀음입니다. 컴퓨터에서 놀러서 놀이를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그게, 근대 환상인데, 왜 환상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느냐 하면, 그것은 나의 몸이나 내 몸이나 몸은 공체(空體)입니다. 환상이란 말입니다. 환상인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느 놈이 때린 거냐? 어느 놈이 어딜 때렸느냐? 어딜 맞았느냐?' 그것을 음미해서 생각할 때 때린다고 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맞는다고 하고 맞지도 않았고, 어딜 때린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때린 사이도 없고 맞은 사이도 없는 거죠.

비디오를 본다고 해도 비디오를 보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불이 들어오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 안 하는 대로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유입니다. 자유,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만 그 실제에도, 거기다 내가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체가 환상입니다. 이것도 환상, 그것도 환상. 그런데 딱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재, 실지가 되는 거죠.

'과거도 현실로 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이 컴퓨터에서 놀이하든 거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왜 관하다고 했느냐? 당신들이 살기도 어렵고 괴롭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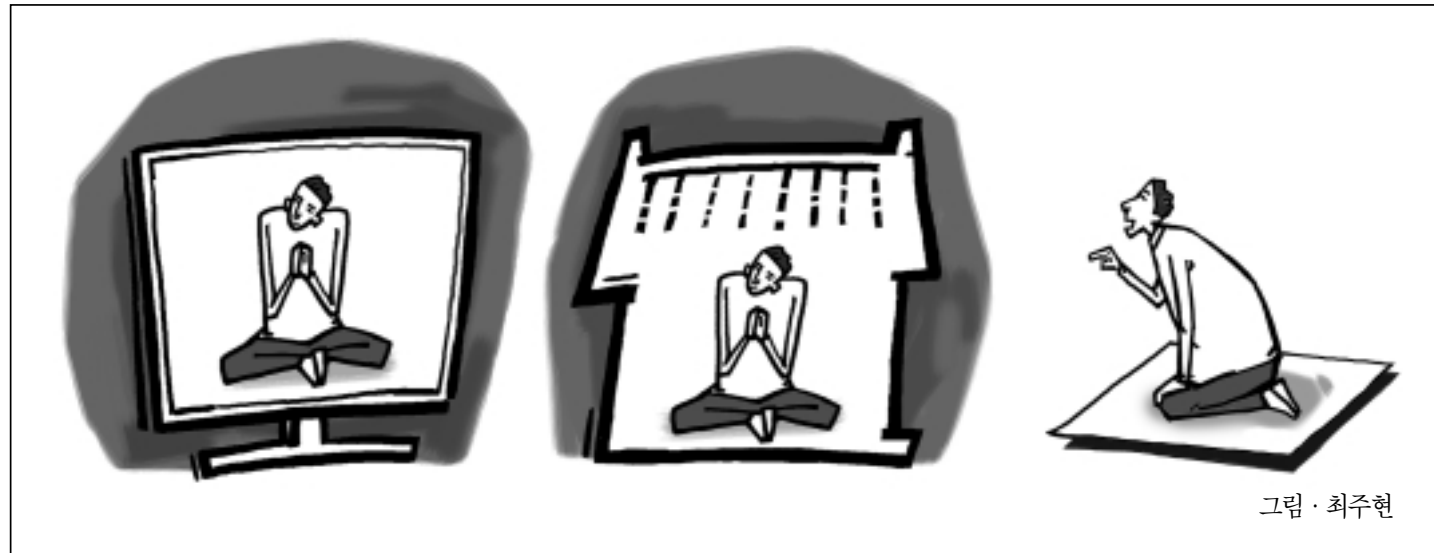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야만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모습은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 생명의 능력은, 생명력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원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생기면 바로 모습 아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겠고, 그게 '불성(佛性)'입니다. 그것이 천차만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로 절대적인 에너지체(處)입니다. 그대 주체(主體)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체를 자기가 각각 그렇게 영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도 공체(空體)고, 공체가기 때문에 속에 제각기 모두 분리해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뚱이 속도 한 지구와 같기도 하고 우주와 같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고,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단 얘깁니다. 진짜로 믿어야 태평해지죠. 진짜로 믿어야 갖다 맡겨도,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맡겨도 그게 진짜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법이 땅에 한테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법(空法)으로서 공용(公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바대로 텔레비전을 보나, 누구에게 들으나, 지금 여기서 들으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커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에서 깨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읽는 소릴 듣고, 그러니까 남이 읽는 소리나 하는 소리나 내가 지금 하는 소리나 뭐가 다릅니까?

세록새록 다른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 그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죠. 못 쓰죠. 말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죠. 또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있었어? 마음대로 하려면 그대로 자기의 실체를 그냥 알아야 되겠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자기한테 원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있으니까 들어 있고요. 그 원소가 없으면 자기는 송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누구를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요. 먹고 자고 행하는 것을 도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행하시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까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자주 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불성, 주인공을 자주 찾아보십시오.

### 세상일에 무관심해지는데...

**문**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근본을 믿고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을 하니 저 개인으로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주변 일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일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답** 편안하니까 그러시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니까 살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하면서 '더러운 물도 바래 쓸 수 있다.' 하는 건 이런 한 잘나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한 잘나에 그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놓으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지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정도가 되죠.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지, 바쁘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원소를,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모습을 받는다 얘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받는 데에 부모의 응으로 받았고 해서 『부모은중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원소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하고 형성되는 그 고생은 모르죠. 즉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는 자기 소관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부모의 소관이 아니라 자기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니다. 차원이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자기의 소관이죠. 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 있는 인연을 따라서 소중한 모습을 받은 그 모습으로 나오게 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로 즉, 만법을 행할 수 있는, 색색 가지로 만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란 이런 말입니다.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부처님께에서는 '불성'을 봤다고 했고 또 불가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서, 잘하면 한 등 올라가고, 올라감이 없이 올라가고, 우리가 문을 찾을 때 지혜롭게 찾아야 문은 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문을 찾아다니는 건 육신을 가진 사람이나 문을 찾아다니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이 없어도 그냥 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원소 자체의 불성은 문이 없어도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난이 '형님, 내가 형님을 뵈고 싶습니다.' 하니까 가섭 존자의 말이 '너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열쇠구멍으로 들어오너라.' 이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올 수 있으면 열쇠구멍으로 들어와다가 가라 이겁니다. 열쇠구멍이 문도 될 수 있는 거라면 이 봉안이 보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않으면 50%를 즉, 정진계로 활용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원소는 정진계를, 원조 두뇌의 정진계를 말하고 또 바른쪽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혼합시켜서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같이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이지... 예전에 청담스님이 대자대비라고 '대' 자 둘을 이렇게 써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대' 자 둘을 써 봤으니까 대자대비, 대자대비, 근데 우리가 볼 때 는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걸어갈 뿐이야. 그냥 길을 하나, 이렇게 주장자를 그려 놔거든요. 누운 주장자, 선 주장자가 있거든. 누운 주장자를 그려 놔오니 그대로 갈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대자대비도 그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대자대비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와선이니까, 누운 주장자니까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냥 걷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머리에 하나의 지혜가 트이면 열 가지 백 가지가 트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 들어대면 그게 법이 되고, 어떤 것이든 들어대면 그대로 걸

22면으로 계속

###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일수록 꼭 읽어야 할 인생 지침서



지옥(智地) 선사 지음  
이둔(理屯) 박태섭 역주  
신국판 양장본 944면  
값 75,000원

부처님의 눈으로 주역의 도를 읽고  
주역의 눈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본 『주역선해』,  
유불선을 30년 동안 연구한 이둔 박태섭 선생이  
7년여의 노력 끝에 내놓은 역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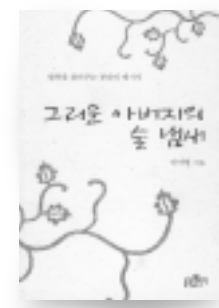
공자가 가족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탐독하였다는 주역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담긴 동양철학 분야의 가장 오래된 고전이다. 이 책 주역선해는 명나라 4대가 중의 한 분으로 존경받는 지옥 선사(智地) 천태학, 선(禪) 등 해박한 불교지식을 총동원하여 불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의리역(義理易)의 명저로 불교와 유교 양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로 주역이 안으로는 성인의 마음을 밝혀가며 밖으로는 제왕의 정의로운 통치를 돕는 것이라면 주역선해는 거기에다 깨달음의 영성(靈性)을 더한 것이다.

“주역선해는 워낙 난해하고 방대해 유불선에 통달했던 탄허 스님이 토를 달았을 뿐, 일반인을 위한 번역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는 무려 1262개의 상세한 역주를 달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있다. 탄허 스님의 제자인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에 대해 '조짜 우담바라 꽃이 핀 것 같고 다음 없는 경사'라고 평했다”  
- 한겨레 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매일경제, KBS 등

**이둔(理屯) 박태섭** - 195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양초·창제중(淸津中)의 22계승으로 15세부터 순화선, 송운선, 간주당으로 이어지는 한학의 계보를 이어받았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였다. 코리야 해럴드에서 전임강사를, 전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대표저서로 『주역의 위대한 미학』, 『소설 기원동경』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의사불교』, 『고전인도논리철학』, 『도인』, 『불교심리학』, 『도타라 붓다의 생애』, 『가발라』, 『기하학의 신비』, 『유류경명』, 『리보위스를 위한 찬가』 등이 있고, 논문으로 『중국종교사의 철학적 해석을 위한 탐구』, 『10여 편이 있다』, 이 책 주역선해는 유불선 경전 탐구 30년 반역과 상세한 각주에 7년의 뼈를 주는 노력 끝에 완성되었다.

### -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

##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이미지 지음  
4·6판 232면  
값 7,000원

경전의 바다에서 낚아 올린  
생생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 책의 지은이가, 달도 별도 가 로동도 없는 감강한 밤의 울릉불통한 굴목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초콜렛을 비취 주며 행복이라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로 이 책의 내용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 소설가 한승원

불가총판사

###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 월간 불광을 만나면 삶이 밝아집니다

33년 한결같은 도반 월간『불광』은 우리의 일상을 빛으로 밝히며, 우리 시대의 밝은 햇빛이 되어왔습니다.

<http://www.bulkwang.org>

1년 구독료 : 38,000원  
2년 구독료 : 70,000원  
3년 구독료 : 100,000원

구독문의 02) 420-3200 팩스 02) 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